

20세기 돌옷 변천에 관한 고찰*

- 사진을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Changes for First Birthday's Costume during 20th Century

- Based upon Photographs -

이 해 영

대전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비즈니스학 전공

Lee, Hae-Young

Dept. of Fashion design and business. Daejeon Univ.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hanges for the first birthday's costume in westernizing Korea society of the twentieth century. For this study, I analysed the related literature for the first half the twentieth centur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hotographs, while I used the method of content analysis of 136 photographs for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hotographs, first birthday's costume for girls dressed up was more different than those for boys. But first birthday's costume items for boys were more than those for girls. Generally first birthday's costume consists of Bokkon Jeonbok Jeogori(Sackdong) and Baji for boy's, Chima and SackdongJeogori for girl's. Because the meanings and look of Hogun, Durumagi, Sagusam, Busun and Baeza are good, those items might be to used for first birthday's costume in the future. To establish better first birthday's culture and costume in Korea, it is important to educate people involved in related business for traditional costume. Because most of first birthday's costume are usually borrowed for photographs. Also item and design for the first birthday's costume should be studied in order to improve traditional cultural products.

Key words : First Birthday's Costume, Item, Photograph

I. 서론

21세기의 사회는 문화 및 정보의 시대라고 말한

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문화상징 중에는 한복을 비롯한 전통생활문화가 포함되어 있다. 전통생활문화는 생활 속에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나 가족들이 오랜 시일에 걸쳐 형성되어 함께 공유하며 계승시켜서 다양한 삶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산이 역사 발전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이 전통문화(최영희 외, 1988)이다. 이는 정신적 전통뿐만 아

Corresponding author : Lee, Hae Young
Tel. 042-280-2461, Fax. 042-283-7172
E-mail : hyoung@dragon.taejon.ac.kr

* 본 연구는 2000년도 대전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한 것임.

나라 일상생활의 의·식·주 그리고 여러 의식이나 의례 등의 공동행사에도 나타난다. 전통은 한 종족이나 민족의 특유한 것이며 사회적 현상의 변화와 함께 문화발전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함축한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과의례를 거치게 된다. 통과의례는 모든 사회에 존재하지만 사회구조나 문화의 차에 따라 강조하는 의례가 다르고 절차 또한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통과의례에는 출산, 관례, 혼례, 상례 및 제례 등이 존재한다. 통과의례중 출산과 관련된 의례에는 산전의례와 산후의례가 있으며 산후의례에는 첫이레, 삼칠일, 백일, 돌이 있다. 이중 첫돌에 관한 것이 예로부터 중요하게 여겨왔다. 특히 의학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과거에는 아기들의 사망률도 높았으므로(통계청, 1995) 1년 동안 아무 탈없이 성장하여 첫돌을 맞는 일은 특별히 중요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더구나 현대에는 가정의 핵가족화로 자녀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져 첫돌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가정의 전통생활문화이다.

첫돌과 관련된 첫돌의례의 구성은 돌잡이, 돌상차림, 돌옷 등으로 구성된다. 돌옷은 첫돌을 맞는 주인공이 착용하게 되므로 다른 날에 비해 잘 차려 입히게 된다. 돌옷의 정형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돌옷의 구성요소들은 16-17세기를 지나 비교적 근간인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확립되거나 정착되고 일반화되었다(조희진, 1998).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가정 행사에서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담아 남기면서 훗날 사진속의 주인공을 보며 옛일을 떠올린다. 사진은 과거의 현장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켜주며 미래를 연결해주는 대중적인 생활속의 문화매체이다. 또한 단순한 기록을 위한 자료의 가치뿐만 아니라 구전보다 사실대로의 모습을 간직하여 오랫동안 그대로 되새겨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20세기 첫돌을 맞는 주인공이 실제로 어떤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통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문헌자료와 관련된 연구 그리고 대중적이면서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주는 사진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20세기 전반부의 들사진은 사진의

수가 적어 문헌자료 및 관련된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20세기 후반부는 사진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사진을 중심으로 한 복식연구는 복식의 양적인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사진을 통해서 20세기 돌옷 변천에 관한 고찰은 우리의 생활문화와 전통복식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전통돌옷의 현대적 생활에 접목시키고 계승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지나간 20세기에는 서구문화와 접촉하면서 우리의 의생활문화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과거시대에 대한 우리의 전통 돌옷을 재발견하여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전통 돌옷을 계승 발전시키고 한걸음 나아가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시키는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복식연구와 사진의 활용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사실성, 대중성, 시각성 그리고 기록성 등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복식연구에 있어 사진자료는 시대에 따라 출토된 유물자료, 회화자료 등의 실물자료와 함께 중요하게 이용된다. 실증적인 자료의 하나인 사진자료는 복식의 흐름을 파악할 때 출토된 유물자료와 함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나 이에 대한 복식 연구는 19세기 이후의 시대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사진술의 등장은 1839년 다게에르(louis jacques mande daguerre)가 은판사진(Daguerre)의 원리를 발명하면서 등장하였고, 우리나라에는 1880년대에 전래(양상규, 1976)되었기 때문이다.

연구에 이용된 많은 실물자료중 출토복식은 원래의 크기와 세부형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며 사진자료는 복식의 착장 상태와 세부형태까지 파악할 수 있어 다른 실증자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대중성도 포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Rowat(1991)은 복식을 연구할 때 사진자료를 이용하여 복식을 역사적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

다고 하였다. 전술한 바 사진은 복식사 분야에서 양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특히 19세기 이후 20세기의 복식변천이나 현상을 고찰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된다.

우리가 복식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사진 자료는 박물관, 고기록 보관소, 대학이나 공공기관의 역사 자료실 등에서 보관된 사진들, 사진작가의 작품집, 그리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들이다. 이러한 사진들의 타입(type)은 개인적인 사진과 가족사진첩(personal and family collections), 사진전문가(professional and studio photographers), 아마추어

사진(amateur photography), 인쇄매체사진(press photography), 공공기관과 비즈니스기록(organizational and business records) 그리고 정부기록(government records) 등으로 분류하여 수집된 사진들이 연구 자료로 중요하게 분석될 수 있다(Rowat, 1991).

위와 같은 다양하게 분류된 사진의 종류들을 자료로서 복식연구를 수행할 때 내포된 한계점이나 문제점은 복식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 연구에 사용된 사진자료는 사진술의 발전에 따라 사진타입이나 사진의 점수에 따라 좌우된다. 어떤 연구에 있어서(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 특히 실증자료를 이용하는 연구 등에서 시대에 따라 존재하는 자료의 한계성이나 제한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2. 돌옷의 문헌고찰

첫돌은 수년, 주년이라고도 불리우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다. 원래 돌이란 말은 주 회 등과 같은 뜻으로 1년의 기간을 단위로 반복되는 경우(동아대백과사전, 1986)를 말하며, 어린아이의 생일이나 나이를 칭할 때도 사용된다.

궁중에서는 태종실록 12년 11월 4일의 기록을 보면 임금의 아들 種의 초도일이므로 수를 빌었다는 내용이 있어 초도라고 하였다. 또 정조15년(1790) 6월18일의 기록으로는 이 날은 혜경궁의 생일날이며 원자의 첫돌날이었다. 온갖 놀이감을 놓은 상을 집복헌에다 차려 놓았다. 원자(순조)가 사

유화양건을 쓰고 자주색비단접저고리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 의젓하였다. 먼저 채색실을 집어 보고 다음은 화살과 관악기, 현악기를 잡아 당겼다고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돌잡이를 한 사실과 돌잡이의 품목 그리고 원자의 전반적인 옷차림새만 기술되어 있다.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첫돌복식과는 다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궁중의 물품목록을 적은 발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돌옷에 관한 품목이 나온다(박성실, 2000). 1898년 9월 영왕의 돌옷의 품목으로는 복건, 사규삼, 패자, 주의, 누비저고리, 민저고리, 누비바지 등이 보인다. 그리고 이 보다 34년 후인 구왕자 돌옷의 품목에는 영왕의 돌옷보다 다양한 품목이 적혀있다. 즉 공정책, 복건, 옥규, 옥대, 술띠, 전대, 조대, 옹포, 창외(내작), 사규삼, 패자, 주의, 배자, 조끼(족기), 저고리(누비동의대, 동의대), 바지(봉지, 누비봉지), 태사혜, 수낭 등이다.

이상의 품목에서 보면 머리의 쓰개류에는 복건과 공정책이, 의외에 속하는 옷에는 사규삼, 패자, 주의, 배자, 조끼 등이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저고리위에 입는 남자아이의 돌옷의 구성이 다양함이 보인다.

한편 민간에서의 기록으로는 양아록에는 숙길이 태어난 지 일주년이 되었다. 여러가지 물건을 진열하여 놓고 무엇을 잡는가를 보는 것은 옛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다(이상주, 1997)라고 하였다. 또 약46년 후인 쇄미록의 기록(1598)에는 효립의 생일이어서 윤희의 처자가 술과 떡을 마련해 가지고 와서 장난감을 효립앞에 벌려 놓고 먼저 짚는 물건을 보았다(오희문, 1992)라고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궁중에서나 민간에서도 돌잡이의 행사는 치렀으며 돌잡이의 물건은 놀이감(장난감), 실, 악기류, 화살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돌상에 놓는 음식으로는 술과 떡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돌옷에 관한 설명은 궁중에서는 다양한 옷이 언급되나 민간의 기록에서는 돌잡이나 돌상차림만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첫돌에 대한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1972)에서도 아기가 나서 1주년이 지난 때 짚은 아기가 앉는 것은 물론이요. 서서 기둥하고

〈표 1〉 연대·장소별 사진의 분포

성별	연대·장소		~ 60년대 (%)		70년대 (%)		80년대 (%)		90년대 (%)		계 (%)	
	가정	사진관	가정	사진관	가정	사진관	가정	사진관	가정	사진관	가정	사진관
남아	4 (4.8)		18 (21.7)		27 (32.5)		34 (41.0)		83 (100)			
	2	2	12	6	14	13	14	20	28	24		
여아	3 (5.7)		11 (20.8)		14 (26.4)		25 (47.1)		53 (100)			
	2	1	4	7	9	5	9	16	15	20		

슬기와 염량이 자못 발달하니 이를 기회로 하여 어른 세계의 온갖 물건을 벌려 놓고 그 생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함이 미상불 피이치 않은 일입니다 라고 언급한 후, 돌잡이의 풍속을 중국에서는 시아니 시주니 하여 육조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조선에서도 벌써부터 이 잔치가 널리 행하여 지금도 쇠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상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첫돌의례의 시원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왕실을 중심으로 행해지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이며 일반 민간에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돌옷에 관한 언급은 돌잡이나 돌상차림에 비해서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산속의례와 관련되어 민속학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의 내용 중 1970년대와 그 이전의 각 지역별 돌옷에 관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기도의 경우는 남아는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전복, 복건, 타래버선, 돌띠이고, 여아는 빨강치마, 색동저고리, 노랑단속곳, 타래버선, 조바위 등이다. 충청도는 집안마다 특색이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바지, 저고리, 조끼, 마고자를 입힌 후 전복을 덧입히고 복건을 써운 뒤 돌띠를 둘렀다. 마고자와 전복사이에 두루마기를 입히기도 했다. 여아는 붉은 치마, 노란색이나 녹색 길에 소매는 색동으로 한 색동저고리이고 마고자를 입혔으며 고름 띠를 하고 염낭이나 노리개를 채우고 타래버선을 신었다. 이때의 치마는 조끼허리를 달아 편하게 해주었으며, 단지 바지

와 저고리, 저고리와 치마를 준비하여 입히기도 한다. 강원도의 강릉지역의 경우에서도 풍족한 가정일 경우는 남아는 분홍저고리, 풍채바지, 타래버선과 남색의 돌띠 등이며 대체로 여아는 돌을 해주지 않았다. 경상도 안동지역의 경우는 남자는 풍차바지, 색동저고리, 조끼, 마고자, 색동두루마기, 띠가 입습이고 복건이나 쾌자를 입힌다. 여아는 다홍치마, 노랑색 길의 색동저고리에 띠를 한다. 진주나 사천지역은 남아는 풍차바지, 저고리, 붉은 돌띠, 두루마기, 타래버선을, 여아는 다홍치마, 회장저고리에 돌띠를 입혔다. 전라도지역의 경우는 남아는 색동저고리, 풍차바지, 조끼, 두루마기와 쾌자, 복건, 타래버선, 돌띠로 조끼를 생략하기도 한다. 여아의 경우는 빨간 치마, 색동저고리를 입히는데 멍기, 타래버선, 꽃신을 더하기도 한다. 제주도에서는 바지 저고리에 버선을 신기는 정도이고 여유 있거나 육지와 왕래가 있는 집안에서는 복건과 전복을 차려 입힌다. 일반적으로 새옷을 입히는데 좋은 옷을 입히면 단명 한다하여 돌잔치는 생략한 다하였다(문화재관리국, 1987).

이상에서 알아 본 바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어도 거의 대동 소이하다. 다만 여유있는 집에서는 돌옷의 품목이 많다. 돌옷의 구성요소로는 남아의 경우는 풍차바지, 저고리에 조끼, 두루마기, 전복 그리고 복건 등이 첨가되었으며 돌띠와 타래버선이다. 여아의 경우는 치마와 색동저고리에 돌띠와 타래버선이며 경기도 지역에서만 노랑색의 속옷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지역별 사진의 분포

지역	서울·경기도	대전·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계 (%)
남아	25 (30.1)	42 (50.6)	9 (10.8)	7 (8.5)	83 (100)
여아	17 (32.1)	25 (47.2)	5 (9.43)	6 (11.3)	53 (100)

III. 사진에 나타난 들옷의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사진의 수는 총 136점이다(표 1). 이중 남아 들 사진의 수는 83점이며 여아 들 사진의 수는 53점으로 여아에 비해 남아의 사진자료가 많다. 본 연구에 있어서도 시대에 따라 사진의 수가 제한되었다. 특히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19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에 걸쳐 컷들 사진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사진자료의 연대 분포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집중된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둔다.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진의 찍는 장소를 가정과 사진관으로 구분한 것은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기념사진은 전문가나 전문사진관에서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별 분포도(표 2)도 대전 및 충청권지역이 많은 것은 현재 대전에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주로 수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인 자신들의 사진을 수집한 경우에는 그 사진의 기록내용 등을 알 수 있는 장점도 가진다. 들옷구성의 품목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과 연구자료를 참고로 하여 한국복식사 전공자 3인이 예비조사를 거쳐 남아와 여아 들옷의 분석품목을 설정하였다(표 3, 4)



〈사진 1〉 굴레와 색동옷

미하기도 하지만 보통 들 옷이라 하면 태어나서 첫 생일날 입는 옷을 들 옷이라 한다. 첫돌이 되면 아기의 신체적 발육 및 인지적 발달이 현저하여진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독립적으로 설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아이에게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옷을 입혔다(문화재관리국, 1986).

조선시대의 풍속화로 잘 알려진 평생도가 있다. 그 평생도는 병풍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평생도의 병풍에는 돌상을 받고 있는 남아의 모습이다(사진 1). 돌상에는 음식이 놓여 있으며 붓과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데 주인공은 굴레를 썼으며 색동옷을 입고 있다. 색동의 모습은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의

1. 남아 들옷

돌이란 해마다 반복되는 뜻으로 한돌 두돌을 의

〈표 3〉 남아들옷의 분석품목

남아들옷											
쓰개			외의				상·하의		기타		
복건	굴레	호건	두루마기	사규삼	전복	마고자·조끼	바지	저고리	띠	신·버선	주머니

〈표 4〉 여아들옷의 분석품목

여아들옷										
쓰개			외의		상의·하의			기타		
조바위	굴레	땡기	두루마기	배자	당의	치마	저고리	띠	신·버선	주머니

귀부인이 입고 있는 색동치마에서 볼 수 있으며 조선시대의 원삼이나 활옷 등의 예복과 어린이들이 착용하는 옷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사진 2〉 호건과 까치두루마기



〈사진 3〉 복건과 사규삼

또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소박한 돌상차림에 돌잡이 할 시쉬용품인 실 등이 보인다. 간소한 돌상차림에 비해 돌옷의 모습은 자못 잘 차려 입혔다. 즉 까치두루마기처럼 보이는 옷에 호건을 쓰고 돌상을 받는 남자 아이의 의젓한 모습(사진 2)이 보납아 돌옷의 쓰개로는 굴레, 호건, 복건을 썼으며 의복에 있어서는 정인다.

확한 옷의 종류는 알 수 없으나 상의의 소매부분이 색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민속학적인 자료에 한번 돌옷을 마련하면 4.5세까지 입힌다는 내용이 있어 첫돌때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큰 명절에 입었던 모습이 있다. 이 모습은 조선일보 1937년 1월 1일자 1면에 위, 아래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11명중 6명은 남아이며 여아는 5명이다. 사진에 나오

는 옷이 선명하게 보이는데 남아는 복건을, 여아는 조바위를 썼다. 이 중 위사진에 보이는 남아 3명중 둘은 사규삼을 입고 다른 한 명은 두루마기와 전복을 입고 복건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사진 3).

그리고 배경에 입춘대길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명절에 입은 모습으로 생각되는 사진에서도 남아아이 3명이 호건을 쓰고 까치두루마기에 전복을 입고 띠를 하고 있는 사진과 같은 돌옷의 품목이 있는 사진도 있다.

1) 분석결과

① 쓰개 : 문헌과 20세기 전반부의 사진에 보여지고 있는 쓰개의 종류로는 굴레, 호건, 복건 그리고 공정척 등이 보이나 실제적으로 수집된 사진에서 보여지고 있는 남아 쓰개로는 대부분 복건이 주류를 이룬다(표 5). 복건은 검은 색으로 만든 것으로 위는 등글고 삐죽하며 끈이 있어 뒤로 둘러 맨다. 단지 1960년대 이전에 보여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에는 호건이나 굴레가 보인다. 호건은 호랑이의 형상을 본 따 만든 것으로 호랑이의 눈과 눈썹 그리고 이빨을 수놓고 귀를 달아 호랑이처럼 용맹스러움을 표현한 남아의 쓰개이다. 또한 기타에는 쓰개를 쓰지 않거나 다른 쓰개의 품목으로 조선시대 왕의 상복인 익선관을 쓰고 있는 모습(사진 4)이나 관리들이 썼던 양관의 모습도 보인다.

② 외의 : 돌옷의 외의로는 두루마기, 사규삼, 전복, 마고자(조끼)로 사진에서 가장 바깥에 입는 것을 말한다. 두루마기는 오방장두루마기와 까치두루마기를 칭한다. 오방장두루마기는 오방색을 곁들여 만든 두루마기로 두루마기의 부분에 따라 색을 달리한 것이다. 까치두루마기는 어린아이들이 설빔으로 오색으로 지었다는데서 상통되지만 보통 소매를 색동으로 한다. 표 6에서 보면 오방장이나 까치두루마기 또는 사규삼을 착용하는 경우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수집된 사진자료는 없었으며 전복의 관측빈도수가 폭넓게 나타났다. 또한 마고자를 입거나 조끼만을 착용한 경우도 전복에 미치지 못하지만 높게 나타났다. 조끼와 마고자는 개화기이후에 생겨난 것이며 모양은 어른

〈표 5〉 시대별로 본 남아 돌옷의 쓰개

관측빈도(%) 품목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복건	2(50.0)	10(55.6)	18((66.7)	27(79.4)	55(66.3)
굴레	1(25.0)	0(0.0)	0(0.0)	0(0.0)	1(1.2)
호건	1(25.0)	0(0.0)	0(0.0)	0(0.0)	1(1.2)
기타	0(0.0)	8((44.4)	9((33.3)	7(20.6)	26(31.3)
계	4(4.8)	18((21.7)	27(32.5)	34(41.0)	83(100.0)

것과 같고 단지 작을 뿐이다. 표 5에서처럼 의 의에서도(기타) 왕복의 상복인 곤룡포를 입을 경우도 익선관과 함께 같이 나타났다(사진 4).



〈사진 4〉 곤룡포와 익선관

③ 상의·하의 : 남아 돌옷의 상의는 저고리이고 하의는 바지이다. 아이의 저고리의 고름은 길게 하여 띠의 역할도 할 수도 있다. 돌옷의 바지는 일반적으로 풍차바지를 말한다. 이것은 어른의 바지와는 달라서 뒤에는 벌여지게 되어 있으며 용변시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

분석품목으로는 포함 되었으나 사진에서 바지와 저고리만을 의외로 입을 경우는 없었다.

④ 기타 : 기타 품목에는 띠, 신, 버선 그리고 주머니가 그 대상이 된다. 돌옷에는 띠 즉 돌띠라고 하여 달아준다. 전복에 있어서는 술띠대신 돌띠라고 하여 수를 놓은 띠를 만들어 달아 주고 이를 아름답게 장식하기도 했는데 이 돌띠는 마고자 뒷길에다 붙여주는 경우도 있었다(유희경, 1983). 또한 상의에 고름이 있는 경우는 고름을 길게 하여 띠의 기능도 한다. 수집한 사진의 분석결과 독립적인 경우는 없었으며 단지 전복위에 술띠 형식이 많았다(전복을 의외로 착용한 빈도수의 91.5%). 마고자나 조끼위에는 띠는 매지 않았고 주머니인 염낭(47.6%)이 바지밑으로 해서 보이며 전복(25.5%)에서도 보인다. 신의 경우 또한 관측빈도수가 적어 앉아서 찍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아 관측할 수 없었거나 혹은 신지 않았고, 서서 찍는 경우에서도 신을 신는 경우는 14.6%로 적으며 대부분 양말은 보인다. 이는 아직 아이의 신체적인 행동과 함께 대부분 사진을 찍게 되는 장소가 실내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6〉 시대별로 본 남아 돌옷의 의의

관측빈도(%) 품목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두루마기	1(25.0)	0(0.0)	0(0.0)	0(0.0)	1(1.2)
사규삼	0(0.0)	0(0.0)	0(0.0)	0(0.0)	0(0.0)
전복	3(75.0)	10(55.6)	16(59.3)	18(44.1)	47(56.6)
마고자(조끼)	0(0.0)	3(16.7)	7(25.9)	11(32.4)	21(25.3)
기타	0(0.0)	5(27.8)	4(14.8)	5(14.7)	14(16.9)
계	4(4.8)	18(21.7)	27(32.5)	34(41.0)	83(100.0)

〈표 7〉 시대별로 본 여아 들옷의 쓰개

관측빈도(%) 품목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조바위	1(33.3)	4(36.3)	6(42.9)	9(36.0)	20(37.7)
굴레	1(33.3)	0(0.0)	0(0.0)	1(4.0)	2(3.8)
댕기	0(0.0)	0(0.0)	2(14.2)	5(20.0)	7(13.2)
기타	1(33.3)	7(63.6)	6(42.9)	10(40.0)	24(45.3)
계	3(5.7)	11(20.8)	14(26.4)	25(47.1)	53(100.0)

2. 여아 들옷

첫들의례가 첫아이의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관습화된 상황에서도 과거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대부분은 여아보다 남아에 치중하여 나타나므로 여아의 들옷에 관한 기록이나 사진도 적게 나타나고 있다(표 1).

들상에 융희4년(1910)4월 5일이라고 표시된 어느 반가 여자아이의 들사진(사진 5)이다.

이 사진에는 굴레를 쓰고 색동옷을 입은 여아의 모습이 어여쁘다. 특히 들상에 드리워져 있는 이 상보에는 출생 연월일이 적혀있어 기록성이 뚜렷한 귀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상보의 디자인을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준다. 또한 들상 앞에 있는 아기의 신이 보이며 떡과 과일 등이 풍성하게 마련되어 있고 붓 등 들잡이 용품도 함께 보인다.

그리고 고종이 회갑이 되던 때에 얻은 딸인 덕

혜옹주의 들날의 모습(김용숙, 1987)이 보인다. 덕혜옹주의 모습에서 화관을 쓰고 보가 장식되고 금박이 있는 당의에 치마를 입었다(사진 6). 덕혜옹주는 당의를 즐겨 입은 것처럼 사진에 보이는데 들날에 입은 당의를 그 이후에도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 분석결과

① 쓰개 : 여아 들옷의 쓰개의 종류로는 조바위, 굴레, 화관, 댕기 등인데 여기에서의 댕기는 뱃시댕기(머리띠의 이미지 포함)를 말한다. 분석결과 조바위를 쓴 경우가 많았으나 남아의 복건처럼 높지는 않았다(표 7). 그 다음이 기타로 기타의 품목에는 쓰개를 쓰지 않는 경우이거나 화관이나 그와 흡사한 것이 포함되어 남아의 경우와 비슷하다. 뱃시댕기는 이름도 대부분 모르며 단지 뱃시댕기와 같은



〈사진 5〉 색동옷과 굴레



〈사진 6〉 화관과 당의



〈사진 7〉 예복이미지의 들옷

〈표 8〉 시대별로 본 여아 돌옷의 외의

관측빈도(%) 품목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두루마기	1(33.3)	0(0.0)	0(0.0)	0(0.0)	1(1.9)
배자	0(0.0)	2(18.2)	6(42.9)	1(4.0)	9(17.0)
기타	2(66.7)	9(81.8)	8(57.1)	24(96.0)	43(81.1)
계	3(5.7)	11(20.8)	14(26.4)	25(47.1)	53(100.0)

머리끈으로 하였으며 빈도수가 낮으나 다른 연도에 비해 1990년대는 5건이나 된다. 골레는 문헌에는 많이 보이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의 실제 수집된 사진자료에서는 1점만이 보인다. 90년대에 보이는 1점도 한국복식을 전공한 사람이 준비한 것을 딸에게 씌운 것이라 한다.

- ② 외의 : 여아의 외의 품목으로는 두루마기 배자 기타 등을 분석대상으로 했다. 분석결과(표 8) 저고리 위에 덧입는 경우는 80년대에 배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소매는 없으며 바로 밑에는 저고리가 보인다. 배자의 도련선은 당의와 같은 곡선으로 된 것도 있으며 저고리선과 같은 짧은 도련선도 있다. 기타에는 저고리위에 덧입지 않는 경우와 성인여자의 예복이미지가 합한 빈도로서 저고리 위에 덧입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인 여자 예복인 장삼, 노의 등을 연상되는 이미지(사진 7)로 80년대와 90년대에 각각 35.7%, 8.0%를 차지하는데 모두 사진관에서 빌려준 옷을 입고 돌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찍은 사진들이다.

- ③ 상의·하의 : 여아 돌옷의 상의는 저고리와 당의이고 하의는 치마이다. 치마는 전통 돌

옷을 입힐 경우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저고리와 당의의 경우만 표로 작성하였다(표 9). 다른 연도에 비해서 90년대에는 저고리와 당의의 빈도수가 56.5%와 43.5%로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저고리는 색동저고리와 색동저고리가 아닌 것이 있지만 대부분 서너가지 정도의 색으로 구성되었다. 소매부분을 사선으로 절개선을 두어 색동으로 만든 저고리도 있다. 이는 저고리의 디자인에서 절개선의 문제이며 1980년대 초기에 성인여자 저고리나 치마에 사선으로 절개선을 하여 다양한 색으로 잇는 것이 유행된 적도 있어 여아 돌옷에도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

- ④ 기타 : 기타의 품목에는 띠, 신, 버선, 주머니 등이다. 띠는 여기에서 돌띠를 말하는 것으로 남아에 비해서 거의 없다. 이는 덧입는 외의가 빈도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저고리의 길이 또한 돌띠를 하기에는 짧다. 저고리의 길이를 조금 길게 하면 고름과 돌띠의 겸용으로 하면서 주머니 등을 매달아 장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신과 버선은 남아와 마찬가지로 관측이 어렵고 보인다해도 신과 버선이 준비가 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표 9〉 시대별로 본 여아 돌옷의 상의

관측빈도(%) 품목	시대				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저고리	2(66.7)	9(81.8)	8(66.7)	13(56.5)	32(65.3)
당의	1(33.3)	2(18.2)	4(33.3)	10(43.5)	17(34.7)

IV. 결 론

위와 같이 상기한 문헌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민속자료 등을 이론적배경으로 하여서 수집된 돌 사진을 중심으로 하여 20세기 돌옷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들은 처음으로 돌을 맞은 아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는 아이를 성장(盛裝)시켜서 사진으로 남겨 놓는다. 따라서 문헌과 사진자료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돌옷으로는 문헌과 20세기 전반부의 사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돌옷의 일습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구성과는 달리 20세기 후반부에 보이는 돌옷의 품목이 대부분 동일하다. 20세기 후반부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아 돌옷의 구성으로는 복건·저고리·바지·전복·띠가 가장 많았고, 바지·저고리·조끼나 마고자로 남자 옷의 기본품목이 그 다음이며, 기타로 조선시대 왕이나 입었던 곤룡포와 익선관 혹은 신하가 썼던 양관 등으로 나타났다. 문헌이나 20세기전반부의 사진 그리고 민속조사보고서에서 보이는 호건이나 오방장 두루마기, 사규삼, 배자 등도 보급되어 현대 우리 전통 돌옷으로 첫들을 맞은 남아에게 착용되었으면 한다.

여아의 돌옷으로는 문헌과 20세기 전반부의 사진 그리고 민속조사보고서에서 보이는 품목은 남아보다 적지만 20세기 후반부 사진 분석결과는 남아보다 좀 더 다양한 돌옷의 종류로 나타났다. 여아의 돌옷을 구성하는 품목은 색동저고리와 치마 혹은 당의에 치마이며 조바위를 쓰기도 한다. 남아에 비해 여아의 쓰개 착용 빈도수는 적게 나타났다. 문헌이나 20세기전반부에서 보이는 굴레나 덩기, 돌띠 등은 착용되지 않았으며 남아와 마찬가지로 여아의 경우도 머리에 착용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잘 차려 입은 것처럼 보이므로 앞으로 돌 사진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외의는 남아에 비해 적었으며 외의의 품목을 변형하거나 성인예복의 이미지로 만든옷을 돌옷으로 입은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었다. 사진들에서 보이는 돌옷의 대부분은 80·90년대로 갈수록 시장에서 구입한 것이 많았다. 또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진관

에서 빌려준 옷도 상당수 있었으므로 앞으로 바람직한 전통 돌옷의 보급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서 제공되므로 실제로 사진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생활문화인 첫들에 입는 돌옷을 고찰함은 지나간 시대에 대한 전통을 재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전통복식문화를 계승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돌옷이란 궁중, 반가 그리고 서민 사이에 입혔던 돌복에 근본을 두어 이를 바탕으로 전통생활문화와 현대적 생활과 접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걸음 나아가 돌옷을 전통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돌옷의 구성과 각 품목에 대한 디자인의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돌옷, 품목, 사진

참 고 문 헌

- 궁중유물전시관(1999). 조선조후기궁중복식, p. 210.
 김용범(2000). 한국전통문화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김용숙(1987). 조선조궁중풍속연구. 일지사. 화보, pp. 258-259.
 문화재관리국(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의생활편.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8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산속편. 문화공보부.
 문화관광부(1998). 주요국의 문화상품개발 지원제도 및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방안. 문화관광부. pp. 7-10.
 산업자원부(1998). 전통문화와 산업디자인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원. pp. 8-15
 박성실(2000). 한국전통어린이복식. 단국대학교출판부. pp. 135-176.
 박성실(2000). 전통 아기옷에 관한 실증적 고찰. 한국복식 제 18호. pp. 43-98.
 양상규(1976). 한국사진사. 형설출판사.
 유희경(1983). 전통문화. pp. 38-43.
 유희경(1986).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pp. 419-420.
 이범직 외(2000). 전통문화란 무엇인가. 건국대학교 출판부.

- 이복규(1997). 한국민속학보, 제8호. 한국민속학회.
- 이문건 저·이상주 역(1997). 양아록. 태학사. p. 48.
- 정상진(1996). 우리민속과 전통문화.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 조진희(1998). 첫돌복식의 착용양상과 통과의례적 의미, 안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풍연(1986). 사진으로 보는 조선시대. 서문당. p. 182
- 최남선(1972). 조선상식문답. 삼성문화재단. p. 86
- 최영희외(1988). 한국의 전통문화. 한림대출판부.
- 통계청(1995). 통계로 다시 보는 광복이전의 경제사 회상. p. 32.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4). 발기, 고문서집성12권. 장서각 편.
- 홍나영(2000). 20세기 한국혼례(폐백)예복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제24권 4호 pp. 594-604.
- A. 반겐넵저 전경수역(1985).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pp. 28-30.
- Linkman, A. E. (1991). The workshy camera: Photography and Labouring classes in the nineteenth century. *Costume*, 25. pp. 36-52.
- Moeller, M.(1983). Photography and history: Using photographs in interpreting our cultural past. *Journal of American Culture*, 6-1. pp. 3-17.
- Rowat, Theresa.(1991). Photographic archival sources for costume research. *Material History Review*, 34. pp. 32-41.